

6월 금융시장 브리프

2024. 6. 3.

[5월 금융시장 동향]

- 5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고 원화는 강세를 나타냈으며, 증시는 국내 매크로 개선 기대와 기술주 강세로 상승

[최근 금융시장 주요 현안]

① 미국보다 빠른 유럽의 금리인하: ECB 6월초 금리인하 유력

- 2%에 가까워진 물가지표에 대응하여 ECB 당국자들이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6.6일로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

②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민감도가 높아진 원달러 환율

-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경상·무역수지 등 수급요인보다 내외금리차나 글로벌 달러 움직임 등 대외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

③ 밸류업(기업가치 제고)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

- 정책당국이 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상승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[6월 금융시장 전망]

- 6월 연준 FOMC에 대한 경계로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방경직성을 유지하는 가운데, 국내 증시는 수출 호조에 따른 제조업 실적개선에 힘입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

- 국고채 금리는 미국 물가와 고용지표, 6월 FOMC에 대한 경계로 하방경직성을 보이겠지만, 금리 상승 시 저가 대기 매수세도 여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(국고채 3년물: 5월 3.45% → 6월F 3.45%)
-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강달러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조성을 보이는 위안화, 엔화 약세에 연동되어 1,360~1,38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(원달러: 5월 1,385원 → 6월F 1,370원)
-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출물가지수가 교역조건 개선과 제조업 실적개선을 견인하며 추가 상승을 시도(KOSPI: 5월 2,637 → 6월F 2,760)

작성자: 경제·금융시장연구실 허문종 실장(02-2173-0568)

증권보험연구센터 서보익 센터장(02-2173-0532)

경제·금융시장연구실 허지수 책임연구원(02-2173-0556)

경제·금융시장연구실 이세린 인턴(02-2173-0566)



목 차



I. 5월 금융시장 동향	1
[참고: 5.23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내용과 시장 평가]	2
II. 최근 금융시장 주요 현안	4
III. 6월 금융시장 전망	7
[붙임1]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	10
[붙임2] 국내외 금리·환율·주가 추이	11

I. 5월 금융시장 동향

■ 5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안하 기대감이 커지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고 원화는 강세를 나타냈으며, 증시는 국내 매크로 여건 개선 기대와 기술주 강세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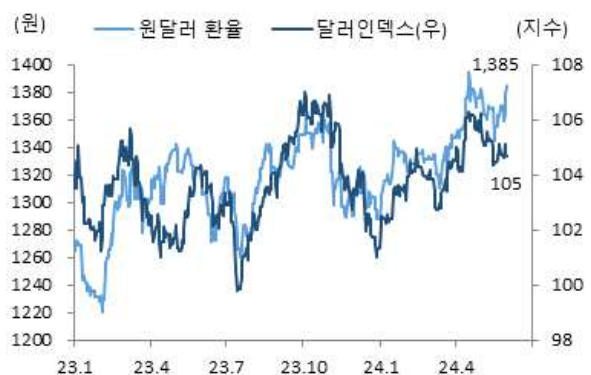
-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완화적인 5월 FOMC와 컨센서스를 하회한 4월 미국 고용지표·소비자물가 영향으로 3.38%까지 낮아졌으나, 매파적 내용이 강했던 FOMC 의사록 등으로 3.4%대로 반등(5.1일 3.53% → 5.31일 3.45%)
- 원달러 환율은 완화적인 5월 FOMC 결과와 4월 미국 고용지표 둔화,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4월 미국 CPI에 힘입어 1,345원까지 하락했으나,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1,370원까지 반등(5.1일 1,382원 → 5.31일 1,385원)
- KOSPI는 수출 호조 기대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, AI·반도체 테마주의 강세에 힘입어 2,750선까지 상승했으나,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로 긴축 우려가 커지며 상승폭이 제한(5.1일 2,692 → 5.31일 2,637)

미국 국채금리, 한국 국고채금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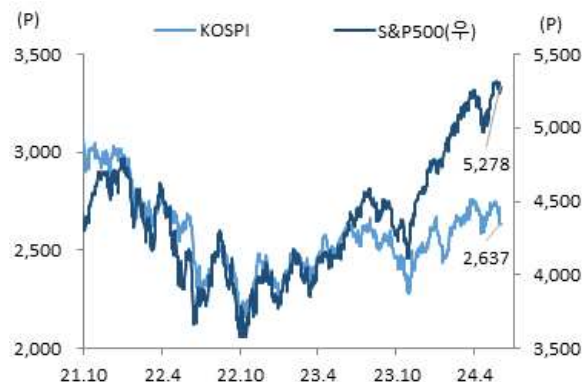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달러인덱스, 원달러 환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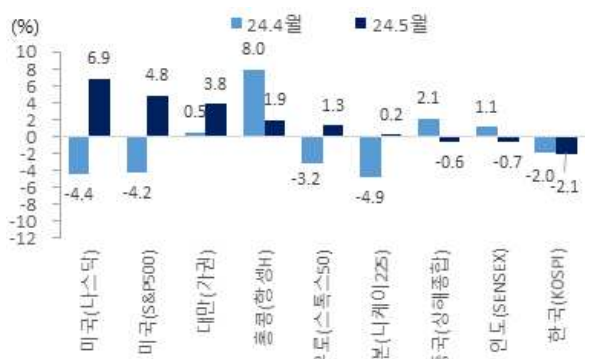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S&P500, KOSPI 지수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24.4~5월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[참고: 5.23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내용과 총재 기자회견 주요 발언]

■ (4.12일 금통위 대비 결정문의 주요 변화)

- 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(2.1% → 2.5%)에도 물가 전망치를 유지(2.6%)했으나,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우려하여 하반기 금리인하 시기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
 - * 성장: (4월) '금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(24.2월 2.1%)에 부합하거나 상회' → (5월) '수출 증가세 지속과 하반기 소비 회복세에 따라 기존 전망(24.2월 2.1%)을 상당폭 상회하는 2.5%로 전망'
 - * 물가: (4월) '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(24.2월) 전망에 부합하는 둔화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말 2% 수준으로 낮아질 것' → (5월) '성장세 개선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증대되었으나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금년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(헤드라인 2.6%, 근원 2.2%) 유지'
 - * 환율: (4월) '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, 주변국 통화 약세 등으로 상승' → (5월) '미 달러화-엔화 등 주변국 통화 흐름, 지정학 리스크에 영향받아 높은 수준에서 상당폭 등락'
 - * 가계부채: (4월) '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' → (5월) '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'
 - * 종합판단: (4월) '근원물가 둔화추세가 이어지겠으나 소비자물가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' → (5월) '물가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'

■ (총재 기자회견 주요발언)

- (성장률 전망치 상향요인)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(기후 영향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, 반도체 투자 지연에 의한 설비 수입 축소)로 순수출이 크게 늘고 내수부진이 완화되며 성장세가 개선
 - * 1분기 민간소비는 예정보다 빠른 신규 휴대폰 출시와 정부의 이전지출 등 일시적 영향으로 늘어난 효과가 있어 2분기에 조정을 거친 후 3분기에 반등하여 연간 증가율이 1.8%에 이를 것으로 예상
- (물가 전망치 유지 배경)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순수출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내수 개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물가 상승압력은 제한적으로 평가
 - *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대책도 물가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
- (금리인하 필요성) 현재 명목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므로 물가 안정세가 확실시되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 존재
 - * 5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1명의 위원만 물가 상승률 둔화추세 지속을 이유로 향후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, 나머지는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물가 목표수준 수렴 전까지 동결 입장을 제시
 - * 인하시점은 물가경로 추이를 보고 결정하며, 인하폭은 내수·수출 간 조화, 금융안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(연준 통화정책과의 차별화 여부)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주요국은 자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실시할 여건이 조성
 - * 한은은 연준 금리결정을 기계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환율 변동성, 자본 이동성, 물가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금리인하 시점을 결정할 방침
 - * 스웨덴과 스위스는 각각 경기 악화 및 가계부채 증가, 낮은 물가상승률(1%를 하회)을 근거로 금리인하를 단행

II. 최근 금융시장 주요 현안

① 미국보다 빠른 유럽의 금리인하: ECB 6월초 금리인하 유력

■ 2%에 가까워진 물가지표에 대응하여 ECB 당국자들이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6.6일로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

- 3~4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4%(yoy)까지 낮아졌으며, 4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.7%로 3월(2.9%) 대비 0.2%p 하락
 - *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5.21일 방송 인터뷰에서 “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상승세가 상당부분 억제된 만큼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”고 강조
- 다만, ECB는 지정학적 위험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, 유로화 약세 우려 등으로 연속적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(시장에서는 6월·9월·12월 분기별 1회 인하를 예상)

■ 한편, ECB에 앞서 유로존 외의 유럽국가들은 이미 금리인하를 시작했으며,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양호한 아시아 국가들도 금리인하에 나설지 주목

- 스위스는 이미 지난 3.21일에 정책금리를 인하했고, 헝가리(4.23일), 체코(5.2일), 스웨덴(5.8일) 등이 4~5월중 금리인하를 개시
- IMF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자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을 과도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을 권고
 - * 크리스티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-태평양 국장은 4.18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등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이 덜 오르고 빨리 떨어진 덕분에 긴축정책을 일찍 종료했다며 미국과의 차별적인 통화정책을 주문
- 당초 6월로 예상됐던 영국(BOE)의 금리인하 시점은 4월 근원물가(3.9%, yoy)와 서비스물가(5.9%)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8월로 미뤄지는 분위기

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, ECB 기준금리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주요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추이

	현 기준금리	결정내용	결정일	향후 전망
스위스	1.50%	25bp 인하	3.21일	-
유로존	4.50%	동결	4.11일	6.6일 인하 예상
헝가리	7.75%	50bp 인하	4.23일	-
미국	5.50%(상단)	동결	5.1일	9월 인하 예상
체코	5.25%	50bp 인하	5.2일	-
스웨덴	3.75%	25bp 인하	5.8일	-
영국	5.25%	동결	5.9일	여름 인하 예상

자료: 각국 중앙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③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민감도가 높아진 원달러 환율

■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경상·무역수지 등 수급요인보다 내외금리차나 글로벌 달러 움직임 등 대외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

- 과거에는 수출(20.1월 이후 상관관계 -0.47) 및 외인 증시자금(-0.50)과 원달러 환율 간에 강한 부(-)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대외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이러한 관계성이 약화되는 추세
 - 수출 회복세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에도 불구하고, 해외부동산 대체투자, 현지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달러 수요가 원화 강세압력을 상쇄했기 때문
 - * 금융감독원에 따르면, 23.9월말 기준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.4조원으로 24년까지 12.7조원(22.5%), 30년까지 43.7조원(77.5%)이 만기도래할 예정
- 원달러 환율 변동은 글로벌 달러(달러인덱스) 움직임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내외금리차, 경상수지 순으로 강한 동조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
 - 아시아 신흥국 통화의 글로벌 달러와의 동조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, 팬데믹 이후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원화도 달러인덱스에 민감하게 반응
 - 원달러 환율은 외환 수급요인보다 연준과의 차별화된 통화정책과 그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, 엔화·위안화 등과의 동조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
 - * 원달러 환율(20.1월~24.4월)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, 경상수지(상관계수 0.96), 한미금리차(-0.69), 경상수지(-0.49)에 대해 유의성이 확인
 - * 아시아 주요국 통화별 달러인덱스와의 상관계수(20.1.1~24.5.27) : 원화 0.96, 엔화 0.87, 위안화 0.70, 바트화 0.89, 링깃화 0.85, 루피아화 0.70, 동화 0.68

무역·경상수지-원달러 환율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내외금리차-원달러 환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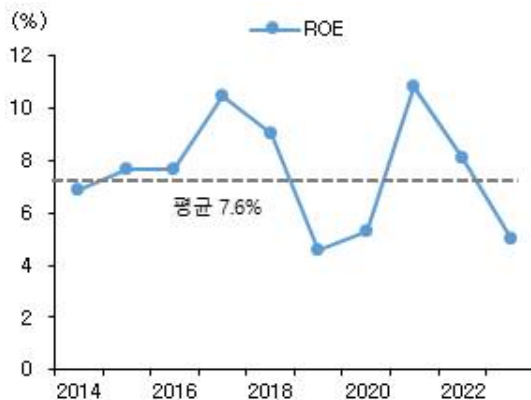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③ 밸류업(기업가치 제고)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

■ 정책당국은 상장기업 기업가치 제고(밸류업)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(2차 공동세미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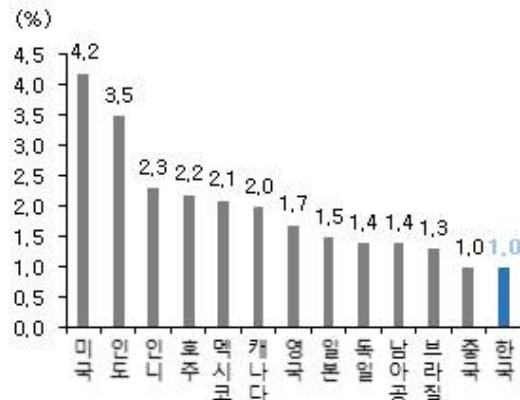
-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 주가상승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
 - 지속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마련되었으나, 그 중 밸류업 프로그램은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 사례로 주식시장의 관심이 집중됨
 - 한국 증시를 저평가로 이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(재벌·오너 중심, 주주환원 부실, 이중 상장, 순환출자, 경영 불투명성 등)을 정책 당국이 진정성을 보이며 해소하려 제도화
 - 외국인투자자 반응: 다수의 외국계 IB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간과하고 주가상승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많아,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더욱 주목한다고 전언
- 일본의 선례에서 좋은 점은 취하되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
 - 21~23년 일본 TOPIX 지수는 18.8% 상승, 그중 은행주는 금리상승 기대감과 함께 밸류업에 적극 대응하여 72.2% 급등(은행주 PBR 21년 0.40X → 23년 0.66X)
 - (좋은 점)** 은행의 경영개선책 공시 이행률 94.1%(23.12.31일 기준)로 수혜, 新 NISA 개인투자자의 금융시장 참여 유도, '주가를 고려한 경영활동' 목록과 영문공시 리스트 발표
 - (부족한 점)** 밸류업 지수(JPX Prime 150 Index)가 수혜주를 미리 선정하지 못하고 리레이팅이 이루어진 기업들을 사후적으로 편입하여(ROE 8% 이상 또는 PBR 1배 이상의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), 단기적으로 주가는 선반영하여 지수 출시 후 주가 약세
 - 국내도 밸류업에 대응한 밸류업 유니버스 구축, 9월 밸류업 지수 출시(연기금 벤치마크 활용 가능성), 12월 밸류업 ETF 출시 등 주요 이벤트가 예정됨
 - 수혜주의 밸류업 지수 편입, ISA 지원 확대, 자율적이고 투명한 공시 이행 등 취지에 부합하는 실천과 지원이 뒤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기회가 될 것

KOSPI ROE 추이: 10년 평균 7.6%



자료: FnGuide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주요 증시의 PBR 비교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III. 6월 금융시장 전망

- 6월 연준 FOMC에 대한 경계로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방경직성을 유지하는 가운데, 국내 증시는 수출 호조에 따른 제조업 실적개선에 힘입어 추가 상승할 전망

[금리]

- 양호한 1분기 경기여건과 더딘 물가 둔화로 금리인하 필요성이 축소됨에 따라 한·미 기준금리 인하시점은 올해 3~4분기로 지연되고 인하폭도 25bp에 그칠 전망
 - 4월 소비자물가·고용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, 전반적으로 양호한 미국 경기여건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스탠스 유지 등을 감안할 때 연준의 금리인하는 올해 9월 한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(6.11~12일 FOMC 회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)
 - * CME FedWatch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올해 9월(5.28일 기준 57.4%) 25bp 1차례에 그치고, 다음 인하시점은 25.1월(77.4%)로 미뤄질 확률을 높게 반영
 - 부동산 PF 부실 등에 따른 내수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,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, 예상을 상회한 1분기 GDP, 원화 약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시점을 올해 4분기까지 늦출 것으로 전망
 - * 금통위 직후 발간된 7개 IB 보고서를 종합하면 향후 금리인하 시점은 4분기(4개 IB)가 3분기(3개)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
- 국고채 금리는 미국 4월 PCE 물가와 5월 고용지표, 6.11~12일 FOMC에 대한 경계로 하방경직성을 보이겠으나, 금리 상승 시 저가 대기 매수세도 여전하여 기준금리 레벨(10년물 3.55%, 3년물 3.45%)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의 등락이 예상
 - * 국고채 3년물 금리 전망(기말, %): 24.4월 3.53 → 5월 3.45 → 6월F 3.45
 - * 미국 4월 PCE 물가 상승률(yoy)은 2.7%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(근원물가는 +2.8%)

선물시장에 반영된 연준 기준금리 전망

MEETING DATE	CME FEDWATCH TOOL - AGGREGATED MEETING PROBABILITIES				
	450-475	475-500	500-525	525-550	550-575
2024-06-12	0.00%	0.00%	0.00%	99.09%	0.91%
2024-07-31	0.00%	0.00%	9.42%	90.58%	0.00%
2024-09-18	0.00%	0.00%	57.42%	42.58%	0.00%
2024-11-07	0.00%	0.00%	83.51%	16.49%	0.00%
2024-12-18	0.00%	40.89%	59.11%	0.00%	0.00%
2025-01-29	0.00%	77.42%	22.58%	0.00%	0.00%
2025-03-19	24.29%	75.71%	0.00%	0.00%	0.00%
2025-04-30	58.42%	41.58%	0.00%	0.00%	0.00%

자료: CME FedWatch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, 기준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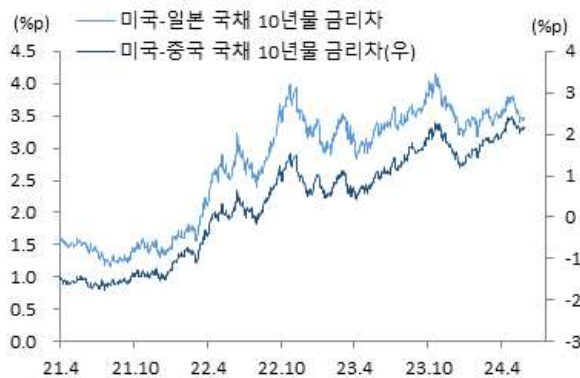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[환율]

- 미국과 유럽·중국·일본 등 여타 국가간의 경기·통화정책 차별화로 채권금리 격차가 유지되며 강달러 압력이 지속될 전망
 - 유럽 경기 반등 기대감으로 최근 6주간 강세를 보인 달러유로 환율은 ECB의 6.6일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미국-유럽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다시 부각되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
 -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1%를 상회하며 BOJ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고 있으나, 미국-일본 간 통화정책 차별화로 금리 격차 축소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엔달러 환율은 156~158엔 내외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 - * 미·일 금리차(10년물 국채금리, %p): 21년말 144 → 22년말 345 → 23년말 327 → 24.4월말 380 → 5월말 343
- 원달러 환율은 수출 회복과 외국인 증시자금 유입에 따른 수급상 원화 강세요인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강달러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조성을 보이는 위안화, 엔화 약세에 연동되어 1,360~1,380원 내외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
 - * 원달러 환율 전망(기말, %): 24.4월 1,382 → 5월 1,385 → 6월F 1,370

미국-중국, 미국-일본 국채금리 스프레드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원달러, 위안달러, 엔달러 환율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[주가]

- 국내 증시는 KOSPI 2,750선을 넘지 못하는 박스권에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의 하락 압력과 PBR 1.0배 이하에서 밸류에이션 하방경직이 동시에 작용 중
 - KOSPI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출물가지수가 교역조건 개선과 제조업 실적개선을 견인하며 추가 상승을 시도할 전망

- ‘3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더 확인한 이후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’이라는 연준(윌러 연준 이사)의 스탠스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판단과 예측이 불충분하며, ‘3개월 이상’ 증시를 억누르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KOSPI를 박스권에 가두는 요인
- 반면, 이익 모멘텀을 회복한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, 미국 빅테크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,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출물가지수, 밸류업 프로그램의 후속 대책 등은 KOSPI 2,700 이하에서 상승을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
- * 밸류업 인덱스 출시 전 금융주로 대표되는 수혜주의 사전적 수요, 이익 추정치가 지속 상향 조정되고 주주환원 의지가 강한 자동차·기계업종, AI 반도체 빅테크 대장주,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혜주인 화장품·음식료·게임·엔터 등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섹터에 주목
- * KOSPI 지수 전망(기말, pt): 24.4월 2,692 → 5월 2,637 → 6월F 2,760



국내외 금융시장지표 전망

항목	단위	2022	2023	24.4월	5월	6월(F)	12월(F)
기준금리	미국	기말, %	4.50	5.50	5.50	5.50	5.25
	한국	기말, %	3.25	3.50	3.50	3.50	3.25
	유로존	기말, %	2.50	4.50	4.50	4.25	3.75
	일본 ¹⁾	기말, %	-0.10	-0.10	0.10	0.10	0.20
	중국 ²⁾	기말, %	4.30	4.20	3.95	3.95	3.70
국채금리	미국 10년	기말, %	3.87	3.88	4.68	4.50	4.20
	한국 3년	기말, %	3.72	3.15	3.53	3.45	3.35
	한국 10년	기말, %	3.73	3.18	3.66	3.58	3.45
	독일 10년	기말, %	2.57	2.02	2.58	2.66	2.10
	일본 10년	기말, %	0.42	0.61	0.88	1.07	1.10
환율	원/달러	기말, 원	1,265	1,288	1,382	1,385	1,370
	달러/유로	기말, 달러	1.071	1.104	1.067	1.085	1.080
	엔/달러	기말, 엔	131.1	141.0	157.8	157.3	157.5
	위안/달러	기말, 위안	6.90	7.10	7.24	7.24	7.25
주가	S&P500	기말	3,840	4,770	5,036	5,278	5,500
	KOSPI	기말	2,236	2,655	2,692	2,637	2,760
	KOSDAQ	기말	679	866	869	840	870

주: 1) 상단 기준, 2) 5년물 LRP 기준
 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1

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

국가(지역)	항목	단위	23.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24.1분기	23.12월	24.1월	2월	3월	4월	5월
한국	GDP	전기비, %	0.3	0.6	0.6	0.6	1.3	-	-	-	-	-	-
	소매판매	전기비, %	0.5	-0.4	-1.9	0.4	-0.5	0.5	1.0	-3.2	1.1	-1.2	-
	서비스업생산	전기비, %	0.9	0.0	1.0	0.4	0.7	1.4	-0.3	0.7	-1.1	0.3	-
	광공업생산	전기비, %	0.8	2.7	1.3	2.2	-0.3	-0.4	-1.5	2.9	-3.0	2.2	-
	제조업PMI	기준선=50	48.2	48.1	49.4	49.9	50.6	49.9	51.2	50.7	49.8	49.4	51.6
	수출	전년동기비, %	-12.8	-12.0	-9.7	5.7	8.3	5.0	18.2	4.8	3.1	13.8	11.7
	취업자	전년동기비, 만명	39.7	34.6	26.3	30.3	29.4	28.5	38.0	32.9	17.3	26.1	-
	소비자물가	전년동기비, %	4.6	3.3	3.1	3.4	3.0	3.2	2.8	3.1	3.1	2.9	-
	근원물가	전년동기비, %	3.9	3.7	3.2	2.9	2.5	2.8	2.5	2.5	2.4	2.3	-
미국	은행 가계대출	전기비, 조원	-8.1	12.3	17.6	15.2	3.5	3.1	3.4	1.9	-1.7	5.1	-
	GDP	전기비연율, %	2.2	2.1	4.9	3.4	1.3	-	-	-	-	-	-
	소매판매	전기비, %	1.8	-0.1	1.5	0.8	-0.1	0.4	-1.1	0.7	0.6	0.0	-
	개인소비지출	전기비, %	6.6	-1.1	-1.6	-1.1	-5.1	0.6	0.1	0.7	0.7	0.2	-
	산업생산	전기비, %	-0.1	0.2	0.4	-0.5	-0.3	-0.3	-0.8	0.8	0.1	0.0	-
	ISM제조업	기준선=50	47.2	46.7	47.6	46.9	49.1	47.1	49.1	47.8	50.3	49.2	-
	ISM서비스업	기준선=50	53.6	52.3	53.4	51.6	52.5	50.5	53.4	52.6	51.4	49.4	-
	비농가고용	전기비, 만명	89.9	75.3	66.7	61.7	77.2	33.3	35.3	23.6	31.5	17.5	-
	실업률	%	3.5	3.6	3.7	3.7	3.8	3.7	3.7	3.9	3.8	3.9	-
유로존	소비자물가	전년동기비, %	5.8	4.0	3.5	3.2	3.2	3.4	3.1	3.2	3.5	3.4	-
	근원물가	전년동기비, %	5.6	5.2	4.4	4.0	3.8	3.9	3.9	3.8	3.8	3.6	-
	PCE물가	전년동기비, %	5.0	3.9	3.3	2.8	2.5	2.6	2.5	2.5	2.7	2.7	-
	PCE근원물가	전년동기비, %	4.8	4.6	3.8	3.2	2.8	2.9	2.9	2.8	2.8	2.8	-
	GDP	전기비, %	0.0	0.1	-0.1	-0.1	0.3	-	-	-	-	-	-
	(독일)	전기비, %	0.3	-0.1	0.1	-0.5	0.2	-	-	-	-	-	-
	(프랑스)	전기비, %	0.1	0.7	0.1	0.3	0.2	-	-	-	-	-	-
	소매판매	전기비, %	-0.5	-0.1	-0.4	0.2	0.1	-1.1	0.1	-0.5	0.8	-	-
	산업생산	전기비, %	0.0	-1.9	-1.6	-0.1	-1.2	2.6	-3.2	0.8	0.6	-	-
영국	수출	전년동기비, %	9.1	-1.5	-5.2	-4.6	-3.2	-1.5	-1.1	-2.3	-1.7	-	-
	제조업PMI	기준선=50	48.2	44.7	43.2	43.9	46.4	44.4	46.6	46.5	46.1	45.7	47.4
	실업률	%	6.6	6.5	6.6	6.5	6.5	6.5	6.5	6.5	6.5	6.4	-
	소비자물가	전년동기비, %	8.0	6.2	4.9	2.7	2.6	2.9	2.8	2.6	2.4	2.4	2.6
	근원물가	전년동기비, %	5.5	5.5	5.1	3.7	3.1	3.4	3.3	3.1	2.9	2.7	2.9
	GDP	전기비, %	0.2	0.0	-0.1	-0.3	0.6	-	-	-	-	-	-
	소매판매	전기비, %	-0.3	0.4	-1.0	-1.0	1.7	-3.8	3.8	0.1	-0.1	-2.3	-
	산업생산	전기비, %	0.2	0.8	0.0	-1.1	0.8	0.6	-0.5	1.0	0.2	-	-
	수출	전년동기비, %	21.8	9.1	-6.0	-7.1	-2.3	-4.7	-2.1	-1.6	-3.0	-	-
일본	제조업PMI	기준선=50	48.1	47.1	44.2	46.1	48.3	46.2	47.0	47.5	50.3	49.1	-
	실업률	%	3.9	4.2	4.1	3.9	-	4.0	4.2	4.3	-	-	-
	소비자물가	전년동기비, %	10.2	8.4	6.7	4.2	3.6	3.9	4.0	3.4	3.2	2.4	-
	근원물가	전년동기비, %	6.1	6.9	6.4	5.3	4.6	5.1	5.1	4.5	4.2	3.9	-
	GDP	전기비, %	4.4	4.1	-3.6	0.0	-2.0	-	-	-	-	-	-
	소매판매	전기비, %	2.4	1.3	1.9	-0.9	0.0	-1.5	0.2	1.7	-1.2	1.2	-
	산업생산	전기비, %	-1.8	1.3	-1.4	1.1	-5.2	1.4	-6.7	-0.6	4.4	-0.1	-
	수출	전년동기비, %	-6.4	1.9	4.6	3.1	-1.7	5.6	-4.4	-1.8	2.6	0.9	-
	제조업PMI	기준선=50	48.6	50.0	49.2	48.3	47.8	47.9	48.0	47.2	48.2	49.6	50.4
중국	실업률	%	2.6	2.6	2.6	2.5	2.5	2.5	2.4	2.6	2.6	2.6	-
	소비자물가	전년동기비, %	3.6	3.4	3.1	2.9	2.5	2.6	2.1	2.8	2.7	2.5	-
	근원물가	전년동기비, %	2.1	2.6	2.7	2.7	2.4	2.3	2.0	2.8	2.6	2.2	-
	GDP	전년동기비, %	4.5	6.3	4.9	5.2	5.3	-	-	-	-	-	-
	소매판매	전년동기비, %	10.6	10.7	4.2	8.3	4.7	7.4	-	-	3.1	2.3	-
	산업생산	전년동기비, %	3.0	4.5	4.2	6.0	4.5	6.8	-	-	4.5	6.7	-
	고정자산투자	연누적, 전년비, %	5.4	4.2	3.2	2.9	4.3	3.0	4.2	4.2	4.5	4.2	-
	수출	전년동기비, %	-1.9	-4.9	-9.9	-1.3	1.5	2.1	8.1	5.4	-7.5	1.5	-
	제조업PMI	기준선=50	51.5	49.0	49.7	49.3	49.7	49.0	49.2	49.1	50.8	50.4	49.5
글로벌	소비자물가	전년동기비, %	1.3	0.1	-0.1	-0.3	0.0	-0.3	-0.8	0.7	0.1	0.3	-
	생산자물가	전년동기비, %	-1.6	-4.5	-3.3	-2.8	-2.7	-2.7	-2.5	-2.7	-2.8	-2.5	-
글로벌	교역량	전년동기비, %	-2.1	-2.6	-4.4	-2.5	-	-2.8	-1.7	-0.5	-	-	-
	제조업PMI	기준선=50	49.5	49.3	48.9	49.0	50.3	49.0	50.0	50.3	50.6	50.3	-

자료: CEIC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2 | 국내외 금리·환율·주가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*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·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.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(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)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